호남민 73% "지방의회 불신"

전국에서 가장 높아 … "주민 의견 대변 못한다" 64%

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9.1%,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9%였다.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평균 4.67점에 불과했다.

특히 거주지 별로는 호남권 주민들의 73.1%, 연령대별로는 30대 응답자의 72.4%가 부정적 인식을 보여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방의회가 주민의견을 '거의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4.7%로 가장 높았고, '약간 대변한다' 40.2%,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 13.4%의 순이었다.

호남권에서는 주민의견 대변 정도에서도 64.4%로 '부정적' 견해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50.6%가 긍정적, 49.4%가 부정적 반응으로 보였다.

이 부분에서도 거주지별로는 호남권 주민들이 부정적 인식이 57.7%나 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 ±3.1%포인트)를 실시했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유권자 및 후보자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당 후보자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고 교육감 선출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 유권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55.8%가 공천 과정에 대해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전대란 대통령 사과 요구 시끌

지경부 국감서 김재균 의원 결의안 주장… 여야 맞고함

■ 국감현장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전사태와 관련, 대통령의 사과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지경위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전대란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대통령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한전 직원들에게 화풀이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국민에 대한 도리이니 상임위 토론을 거쳐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김영환 위원장에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발언을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지원하며 큰 소리를 내면서 고성이 오갔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결의안은 안건인데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그런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면 위원장은 마이크를 끄는 등 적절하게 발언을 제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잠룡 중 한 명인 정몽준 의원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여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내년 3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핵안보정상회의를 거론하면서 "57개국 정상이 회의에 참석하면 가히 G50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사를 왜 총선 전에 여느냐, 공연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회의에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민감한 발언으로, 만약 김 위원장이 온다면 총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반대로 안 오면 공연한 말로 신뢰도에 손상이 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장관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 장관이 "외교문제는 국내 정치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하자 "그게 무슨 궤변이야"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그는 특히 질의응답과정에서 "날짜를 정한 게 언제야", "왜 총선 법정 선거 운동 기간에 끼워넣은 거야, 그게 상식에 맞아", "국내 정치와 상관없다는 게 자랑이 아니야. 효율성을 위해 끼워 넣었다는 데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줄곧 반말조로 김 장관을 추궁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심지어 "장관이 대학졸업하고 외교부에 있은 지 오래됐는데 이건 초등학생의 상식에도 안 맞는 것 아니냐", "(김성환) 장관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니까 외교부가 문제가 없이 잘 되는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장서 박수 친게 누구야" 19일 문화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참고인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자 "박수 친 사람이 누구냐"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가수 유열이 전재희 위원장의 발언에 박수를 친 것으로 민주당 전병헌의원이 문화부 장·차관에 대한 전 위원장의 호칭을 문제삼자 전 위원장이 "존중의 뜻으로 장차관에게 '님' 호칭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박수를 쳤다는 것.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 징역 4년 구형

추징금 9억4000만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검찰 구형에 앞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최중경 즉각 사퇴해야"

與지도부·민주 촉구

여야는 19일 정전사퇴와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몰아세웠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전대란으로 자칫 나라가 주저앉을 뻔했다. 온 사회가 마비될 뻔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가운영 능력 부재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정전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최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악화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선조치, 후사퇴'를 말할 게 아니라 물러나고 새 사람이 원인을 규명하고 수습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근 10년간 원전 고장 정지 91건

최근 10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고장으로 정지된 사례가 91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는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의 원전 고장정지 현황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20일 영광 5호기가 주급수 제어밸브 제어용 터치스크린 노후로 인한 오동작으로 정지됐다. 영광 5호기는 2월4일에도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정지에 의한 원자로 정지 사고를 겪었다.

또 4월12일 고리 1호기는 차단기 고장으로 발전이 멈췄고, 고리 2호기가 6월21일 계전기 문제로 원자로가 정지되는 등 전국에서 올해만 모두 4차례 고장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력공급 능력 조작은 관행"

강창일 의원 주장

정부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 '조작'은 관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전력당국이 관행적으로 전력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 공급 능력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거래시간별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은 7071만㎾,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와 예비력은 각각 6400만㎾, 671만㎾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에는 전날 발전입찰에 참여했지만 높은 연료비 탓에 탈락해 실제 공급이 불가능한 발전기 발전량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거래소가 계획한 실제 공급능력은 6880만㎾였다.

여기에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력을 뺀 '순수한' 공급능력은 6480만㎾에 그쳐 당일 전력피크와 차이가 80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발전원가 보다 싼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덜한 봄, 가을에는 가능한 발전기를 덜 가동시키는 게 현재 수준에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력거래소가 전력예비력을 허위보고했고, 발전사가 발전대기를 하지 않아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지경부가 정전사태의 책임을 전력거래소와 발전사로 돌렸다"면서 "이는 지경부가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 조작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8/27~10/28출발 (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79,000 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29,000 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8/22~10/27출발 (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원~
상해,항주,황상 4일 589,000 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679,000 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19,000 원~

ONLY 단하루!
무안공항출발 방콕전세기 확정!!
10월15일 단하루!!
무안공항↔방콕 · 파타야5일
특급호텔 방콕 · 파타야 5일관광 589,000원~
특전 특급 호텔사용,전통안마,코끼리트래킹,로얄드래곤
초특급호텔JAU+ 방콕 · 파타야 5일관광 799,000원~
특전 초특급호텔사용,전통안마,알카자,코끼리트래킹, 베이욕뷔페, 씨푸드,나이트투어
고품격JAU+ 방콕 · 파타야 5일골프(54H) 1,099,000원~
특전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중식포함
광양훼리 큐슈 3박 4일 [8/28~12/21출발 (일,수)]
호남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제적인 일본여행~
뱃부3박4일 9/1~9/28 129,000원~
10/2-12/21 179,000원~
야마구치3박4일 9/1~12/21 139,000원~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9,10,11월 출발기준-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원~
서유럽5국(융프라우) 10일 2,090,000원~
홈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원~
멜크 동유럽5국9일 1,290,000원~
터키 7대도시 완전일주 9일 1,690,000원~
알펜타워+서유럽6국12일 1,790,000원~
스페인,포르투칼10일 1,990,000원~
이집트,그리스,터키 11일 2,190,000원~

동남아
방콕,파타야 5일 449,000원~
세부 4/5일 349,000원~
보라카이 직항 5일 559,000원~
싱가폴 5일 659,000원~
5성급 캄보디아 5일 599,000원~
JAU+ 베트남 캄보디아 6일 549,000원~
베트남 북부 5일 449,000원~

중국
홈쇼핑HIT 북경4일(5성급호텔) 269,000원~
홈쇼핑HIT 상해4일(풀옵션) 349,000원~
계림(이강유람,관암동굴)4일 449,000원~
항공이동 서안,구채구5일 1,149,000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원~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원~
노팁 미서부,태평양일주8일 1,390,000원~
3대캐년 미서부완전일주 1,690,000원~

예/약/상/담
광천점 350-6226 | 두암점 267-8587 | 상무점 652-2974 | 수완점 574-1300 | 조선대점 227-8255 | 진월점 382-5353 | 첨단점 233-2627 | 충장점 222-9796 | 하남점 954-9700

서울시 중구다동 88번지 동아빌딩 5층,6층 ●서울시 중구청 등록 일반여행업 제39호 ●○표요금변동있음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가입(기획여행 상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1억원 여행자보험 ●1급이상호텔(일부상품제외) ●최소출발인원(10명이상/인솔자동행 :일부상품제외) ●전일정식사제공(기내식포함) ●교통편 : 항공/버스/기차/선박 ●여행불편처리센타 1588-8692 ●환율변동에 따라 요금변동 있음 ※여행일정변경 시 사전에 여행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가격포함 내역]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포함/유류할증료포함 (단, 자유여행상품은 미적용되며, 급격한 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금액 변동가능)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 : 상품 및 출발일에 따라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이 있을 수 있으며, 각국 비자비용 및 고객의 선택에 의한 안내원 봉사료는 선택경비 사항이며 기사/가이드팁은 권장사항임.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및 홈페이지 참조